



김민석 국무총리, 여수 석유화학 국가산단 방문

- LG화학 여수공장 현장에서 나프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,
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차질없는 생산 당부 -

-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3일(목) 오후, 여수국가산업단지 LG화학 공장을 방문하여 석유화학산업 현장을 시찰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.
 - * (참석) LG화학 사장, 글로벌생산센터장, 여수공장 공장장, 전략구매그룹장, 한국화학산업협회 부회장, 전라남도 부지사, 여수시 부시장,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 등
- 김 총리는 먼저 LG화학 김동춘 대표이사 사장에게 LG화학 생산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,
 -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지역으로서 그간 국가 수출과 경제발전을 묵묵히 뒷받침한 여수산단 석유화학 기업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.
- 또한 김 총리는 LG화학으로부터 글로벌 나프타 수급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으면서, 중동발 나프타 수급 불안 등 현재 석유화학 산업이 처한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수급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.
- 이어서 김 총리는 현장을 시찰하면서 나프타 분해 설비(NCC)를 둘러보고, 국내 공급망 안정을 위해 차질 없는 석유화학 제품 생산과 공급을 당부하였다.
 - 석유화학 업계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나프타 도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, 에틸렌·프로필렌 등 기초유분과 폴리에틸렌(PE), 폴리프로필렌(PP) 등 주요 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.

- 아울러 김 총리는 산업통상부에도 석유화학기업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나프타 수급 안정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였다.
- 정부는 앞으로도 중동상황에 따른 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총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 김병준 (044-200-2211)
		담당자	서기관 이영열 (044-200-2222)
			사무관 노승호 (044-200-2212)

